

카카오, 네이버 독점 인터넷 광고시장에 도전장

카카오가 카카오톡과 다음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광고 플랫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선언하며 인터넷 광고 시장을 둘러싸고 라이벌 네이버와 한판 대결이 예상된다.

네이버는 현재 검색과 디스플레이 광고에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가운데 카카오는 카카오톡·다음 등의 생활밀착형 서비스에 광고를 접목한다는 구상이어서, 네이버 '방패'와 카카오 '창'의 대결로 관심을 끈다.

특히 카카오가 감점을 지냈고 사용자 변동이 많은 스마트폰 분야에서 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모바일이 승패를 결정할 가능성이 될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볼 때 카카오의 광고 매출은 라이벌 네이버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네이버는 올해 3분기 매출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74.0%에 달하지만, 카카오는 같은 기간 광고 비중이 33.5%다.

카카오 3분기 매출의 절반은 게임·음원·웹소설 등 콘텐츠 사업에서 나왔다. 콘텐츠가 회사를 먹여 살리고 있지만, 수익성은 신통치 않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이버의 간판 광고 상품은 검색광고다. PC와 모바일 사이트·앱(응용프로그램)에서 검색어에 맞춰 뜨는 광고로, 인기가 높다. 한국인 10명 중 8명이 쓰는 압도적 1위 검색 엔진인 네이버의 위상 덕에 우

광고 플랫폼 네이버 '방패'-카카오 '창'의 대결

네이버

카카오

압도적 1위 검색 광고 기반

기업용 '카카오톡' 기능 강화

글로벌 메신저 '라인' 상승세

AI '챗봇' 등 생활형 서비스

위가 분명한 영역이다.

네이버는 PC와 모바일 플랫폼에 쏠리는 막대한 트래픽을 활용하는 디스플레이(노출형) 광고도 탄탄하다. 네이버의 국내 광고 매출에서 검색과 디스플레이 광고의 비율은 8:2가량으로 알려졌다.

메신저 라인의 광고도 상승세다. 라인은 중국 위챗과 함께 광고 수익 모델이 가장 잘 갖춰진 글로벌 메신저로 꼽힌다. 유료 기업 계정 등의 마케팅 상품을 통해 라인이 벌어들인 매출은 네이버 3분기 광고 수입의 21%에 달한다.

카카오는 반면 포털 다음의 국내 검색 점유율이 약 15%에 그쳐 검색 광고를 통한 수익이 부진하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도 라인과 비교해서는 아직 광고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품질도 낮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예컨대 라인의 유료 마케팅 계정은 고객에게 주문·예약·결제 등을 해줄 수 있어 몰입감이 좋지만, 카카오톡의 마케팅 계정은 현재 '메시지 보내기' 밖에 없어 입지가 좁다.

서비스를 내놓기로 했다.

빅데이터를 통해 기업체가 카카오의 광고 상품군(群)을 통해 꼭 필요한 타겟(표적) 고객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고, 온라인 광고 효과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광고 주용 서비스도 내놓는다.

카카오 관계자는 "다양한 서비스에서 이용자와 기업이 만나 '원원'(상호이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꾸준히 알리겠다"며 "포털 다음도 카카오톡과의 연계 효과를 높이는 작업이 계속돼 광고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네이버 관계자는 "우리 광고의 다수는 검색 광고지만 카카오는 콘텐츠 기반 광고로 보여 영역이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콘텐츠 광고업체와 오히려 경쟁관계가 형성될 공산이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완전히 장악한 PC 분야에서는 점유율 변화가 미미하겠지만, 카카오가 카카오톡 등 '주력 무기'로 모바일 광고에서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카오톡에 모이는 사용자 흐름을 잘 파악해 얼마나 광고를 잘 붙이냐에 따라 광고 실적이 결정될 것"이라며 "모바일은 PC보다 역동성이 훨씬 많은 분야라 예측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휴대전화 로밍 정보, 감염병 예방에 쓰인다

오염국 방문자 관리

해외 여행객의 휴대전화 로밍 정보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에 이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 감염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16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오염국가 정보를 이동통신사에 제공, 이동사는 해외 로밍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입자가 감염병 오염국가에 방문했다는 정보를 질병관리본부에 전달한다.

이 정보로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오염지역을 다녀온 이동통신사 가입자에게 해당 감염병의 잠복기간에 '감염병 증상 발현 시 자진신고(1339)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감염병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해외여행객의 오염국가 방문 정보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전국 의료기관과도 공유돼 일선 의료기관 의사가 환자의 여행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76조의2(정보제공 요청 등)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해외 로밍데이터 정보를 감염병 예방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KT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되며, SKT와 LGU+도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 4월부터 모든 이동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본사업이 시작된다.

이재호 kt 빅데이터센터 과장은 "kt 고객 중 80%가 해외로밍 서비스를 이용한다"며 "이용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감염병명 등 관련 정보는 잠복기 추정 기간까지만 보관하고 감염병 대응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돼지 심장 이식 원숭이 국내 최장 생존

51일째...임상 연구 추진

전 세계적으로 '이종 간 장기이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돼지 심장을 원숭이에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건국대 병원 윤익진 교수팀과 공동으로 돼지 심장과 각막을 '필리핀 원숭이'(cynomolgus monkey)에 이식한 결과 51일째 건강하게 살아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국내 최장기록(43일)을 뛰어넘는 것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돼지는 포유동물 중에서도 생리 및 장기 형태가 사람과 가장 비슷해 장기이식을 위한 대체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농진청은 앞서 2010년 독자적으로 영장류에 장기를 이식할 수 있는 바이오 이종이식용 '민음이'를 개발했다. 특히 이종 간 이식 시 가장 큰 난관은 거부



국내 돼지심장 이식 원숭이

반응을 없애는 것인데, 민음이는 거부반응 억제 유전자가 더 나오도록 개발됐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특히 기술을 생명공학 전문기업인 ㈜옵티마에 이전했으며, 기업과 협업을 통해 임상 적용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12만권 외운 국산 AI와 인간 퀴즈대결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인공지능(AI)과 인간의 퀴즈대결이 열린다.

16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따르면 ETRI가 개발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엑소브레인'(Exobrain)이 오는 18일 원내에서 EBS 장학퀴즈를 통해 인간과 대결을 벌인다.

IBM의 AI 시스템 '왓슨'이 2011년 '제퍼디!(Jeopardy)' 퀴즈쇼에 출연한 것을 벤치마킹했다. 당시 왓슨은 역대 최다 우승자와 최고 상금 보유자 등 2명

과 겨뤘던 압도적인 차이로 우승했다.

엑소브레인은 그동안 도서 12만권 분량에 해당하는 백과사전과 국어사전, 한자사전, 일반상식 등의 언어를 이해하고 지식으로 바꾸는 연구를 수행해왔다.

특히 지난 9월부터 두 달 동안 사물레이선 대결을 벌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

검색엔진은 사용하지 않으며, 서버에 저장된 책들로부터 정답을 추론해 답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합뉴스

“나만의 창작 로봇 뽑내요”

광주과학관 로봇 콘테스트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강신영)은 다음달 열린 로봇 특별전에 맞춰 관람객들이 참여해 자신이 제작한 로봇 창작품 등을 함께 전시하는 'I ♥ Robot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I ♥ Robot 콘테스트'는 광주과학관이 오는 12월 17일 개최하는 로봇 특별전과 연계돼 진행되는 이벤트다. 프라모델(Plamodel) 등 로봇과 관련된 조립품과 순수 창작품 등 두 분야로 나뉘어 작품을 접수받아 로봇 특별전이 끝나는 2017년 3월 1일까지 전시된다.

이번 콘테스트에서 선발되면 광주시장상과 소정의 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며, 서류심사에 합격한 모든 출품자들은 광주과학관 상설전시관 및 로봇특별전에 자유롭게 출품할 수 있다.

콘테스트에 참가를 원하는 개인 혹은 단체는 오는 30일까지 출품작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cecenter.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드론 가상 체험

최근 국립광주과학관이 개최한 '2016 무한상상 페스티벌'에서 드론 체험전·경진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드론 조종 시뮬레이션을 체험하고 있다.

국립광주과학관 제공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4,5,6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팻섬, 비금도내에 있는 섬

■ 향후 개발시 100억 가치

■ 매매-7억, 분할매매 가능

보성, 복내면 임야

■ 보성군 복내면 계산리 산87번지 외 5필지(81-1,4,5,6,7)

■ 13만평중 1/5지분, 26000평

■ 야산, 전기시설, 임로개설

■ 매매-2억6000만원

화순, 동복면 임야

■ 동복면 연월리 산195-2,7,8번지 29381평, 2차선 국도접합

■ 번지내 1층건물 포함 (53평)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9억, 감정가 - 9억

북구, 청풍동 임야

■ 광주 북구 청풍동 산272-1 2339평, 지역녹지지역

■ 신촌마을 북서쪽에 위치

■ 장기투자 최적

■ 매매- 3500만원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동구 수기동 23-2

■ 20층중 9층, 32평, 코너

■ 전체율수리, 전망최고

■ 주거겸 사무실, 시세 1억4000만원

■ 매매 - 1억원

나주, 공산면 근린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42평 건물24평 창고15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 대로변 접합, 위치 좋음

■ 매매 - 5000만원

무안, 일로읍 잡종지

■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323-3

■ 잡종지 1081평

■ 옆 국유지 약700평 있음

■ 공장등 용도 다양

■ 매매 - 2억2000만원

장성, 동화면 전원주택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매매 - 7680만원

구례, 산동면 대형모텔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

■ 대지573평 건물719평 4층건물

■ 지리산 온천지구내, 객실58개

■ 리모델링 준비중 (4억이상)

■ 매매 - 협의, 감정14억

금호동, 근린상가

■ 서구 금호동 243-6

■ 서광병원 맞은편 코너, 130평

■ 7층 건물중 701호, 7층 전체

■ 보5천만원에 월250만 임대 가

■ 매매 - 6억(조정가), 감정7억